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본격 착수

새만금청, 2025년까지 사업비 30억 확보 따라 학술·기술 분야 구분해 용역 발주... 기업 친화적 계획·전략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대규모 전문용역을 발주하는 등 재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총 30억원의 사업비(2024년 15억원)를 확보함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학술·기술 분야를 구분해 용역을 발주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기업수요에 맞는 전폭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민간 투자가 급증하여 지난

해 10조원이라는 역대 최고 민간 투자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정과제인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및 인프라(기반시설) 조성,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투자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3·7공구 조기 매립 착공,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등 전폭적이고 즉각적인 추가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산업분야의 성공을 새만금 전체로

확산하고, 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조성해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는 새만금 2.0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새만금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수립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핵심어)를 '기업'으로 두고, 산업 용지 대폭 확대 등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 이용계획을 구성하는 등 자유로운 경

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개발전략 수립,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간체계 변경 등 새만금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검토하게 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빨리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거듭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NH농협 익산시지부는 17일 익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250만원을 기탁했다.

“우리 농축산물 답례품 우수성 알릴 것”

NH농협 익산시지부, 익산시에 고향사랑기부

NH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이상우)는 17일 익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25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은 도입 2년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익산의 농축산물 답례품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NH농협 익산시지부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진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오프라인 기부는 전국의 농협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이상우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농협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익산의 농축산물 답례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타 지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근로 환경 '안전'

경영도 '안전' 최우선

새만금개발공사, 도급사업

안전관리 프로세스 설명회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 최고 경영자, 관리 감독자 및 관련업무 담당자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도급사업 안전관리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급사업까지 중대산업재해 예방환경을 조성해, 이를 통해 공사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문화를 확산하고자 시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토대로 도급인의 의무와 시행절차, 안전보건수준평가 등에 관해 교육을 진행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이정현 사장 직무대행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도급업체까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지난 16일 자체 개발한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기술을 도입한 경기도 양평 딸기재배 농가를 찾아 기술 적용 현황을 살폈다.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기술 적용 현황 살펴

농진청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경기 양평 딸기재배 농가 방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지난 16일 자체 개발한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기술을 도입한 경기도 양평 딸기재배 농가를 찾아 기술 적용 현황을 살폈다.

이승돈 원장은 농장과 딸기 생육 상황을 둘러보며 기술 개발 효과를 점검하고, 농업인들과 만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은 온실 난방비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작물 재배 환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기능성 보온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며, “온실 보온과 방한방 기술 개발보급에 힘써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겹보온커튼은 온실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온재이다. 화학섬, 부직포, 폴리에틸렌(PE) 필름 등을 여러 겹 누벼 보온성이 우수하지만, 오래 사용하면 내구성이 떨어지고 수분을 흡수해 무거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2018년 에어로겔을 이용한 다겹보온커튼을 개발했다. 신소재인 에어로겔은 가볍고 나노 크기의 다공성 구조로 되어 있어 단열성이 매우 뛰어나다.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을 온실에 적용한 결과, 일반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했을 때보다 난방비가 15~20% 줄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20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시범사업'의 하나로 경기 양평 딸기재배 농가에 기술을 적용했다. 이후 농가에서는 난방비를 최대 40%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김욱기 기자

전북환경청,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

겨울철 밀렵·밀거래 방지 일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17일 무주군 실천면 일대에서 불법엽구 합동 수거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지방환경청, 무주군청,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하여 울무 13개, 참에 1개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하였으며, 2023년에도 같은 행사를 추진하여 울무 19개를 수거한 바 있다.

특히, 밀종위기 1급 동물인 반달가슴곰의 이동 예상 지역에서 행사를 실시하여 곰이 동면에서 깨어나기 전에 서식지 위협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이와 더불어 주변 쓰레기 수거와 지역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단속·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힘썼다. /김욱기 기자

아울러, 환경청은 야생동물의 포획·채취 등 음상적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범국민적 밀렵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중으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발견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적발된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지역 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